



‘죽음의 전사’



‘문명의 이기’

# 서정성과 공간감 극대화... 서사 투영에 심혈

### 역사와 소시민들 삶 천착 조정태 작가 개인전 내달 3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서 10여점 출품 대작 위주 작업 계획...“자랑스러운 전시” 밝혀

“이제 그림의 크기를 떠나서 그림 그리 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미술이나 예술을 보는 관점이 요즘 들어 너무 편향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본래의 기능 말고 상업적인 용도 쪽으로 너무 경도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내가 추구 하는 예술은 뭐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뭘까를 고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살릴 수 있는 것,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림을 조금 은유 적으로 그리고, 은유는 물론 상징을 가지 고 하고자 하는 말을 좀 하자는 겁니다. 또 그 스케일이 커지면 내가 갖고 있는 서

정성이나 공간감이 극대화되는 것 같더라 고요.”  
위 멘트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8월 3 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9 년만에 인물화 개인전을 열어 관심을 받 았던 조정태 작가가 올해 개인전을 앞두고 밝힌 전시 소회다. 조 작가는 지난 10 일 개막, 오는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무등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명멸하는 별 들에게’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출품작은 대작 ‘별이 된 사람들-황천귀로荒天歸路’ 등 10여점.  
역사와 소시민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해

은 그의 화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늘 시 대정신의 맥락에 가닿으면서 민주적 삶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온 그 간의 행적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이번에는 앞서 말했듯 상징과 은유의 미학을 실 현하고 있다.  
함께 전시 설명 자리에 있던 정송규 관 장(무등현대미술관)은 이번 전시에 대해 조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심도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하며 다시 한 번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강조했다. 이렇듯 조 작가의 요즘 작업의 흐름과 10년 전후로 일어난 화풍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자리로 손색이 없다.  
관람객들에게 더 세밀하게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대작 위주로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는 2025년 서울 전에 이어 주요 활동지인 광주에서 진행되 는 순회 전시 성격으로, 작가의 예술적 역

량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2년부터 10여 년간 천착해온 ‘별이 된 사람들’ 연작은 작가 개인의 실체를 탐 색하는 과정이자, 민중미술 작가로서 체화 된 역사적 세계관을 별자리의 이야기로 풀 어낸 결과물로, 별을 통해 역사의 진보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살아남은, 어떤 순수한 것 을 상징화한다.  
이는 경직된 역사주의 이념에 대한 성찰 이며 개별적인 삶의 조각들이 모여 이루는 윤리적 세계관의 표현이다. 그의 작업은 자아를 찾는 나르시시즘에 머물지 않고 역 사를 재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사 유해 왔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미술관 관계 자의 설명이다.  
정송규 관장은 미술관 문을 연 뒤 한 50 명 정도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고 홍보해

주는 등의 것이 미술관 일로, 최근에 생각 은 1년에 한 작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길 러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 다.  
정 관장은 “금년에는 조정태라는 작가 개인전을 열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또 투 철하게 전시해 주십사 하는 소리도 안했 다. 근데 보니까 이제 눈빛으로 우리는 안 다. 이 친구가 작업을 열심히 한 친구인데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전시를 열게 됐다. 나로서는 굉장히 자랑 스러운 전시다. 더욱이 광주 사람들이 가 지고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이 (작가의 작품 에) 다 녹아 있어서 정말 이 작가처럼 실 제 어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은유적 인 표현으로 녹아 있는 작품을 하기가 어 렵다”고 전했다.  
스케일이 커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서정 성이나 공간감이 커진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작가는 앞으로 서사를 좀 더 담은 대 작 위주의 작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 이다.  
조정태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와 와 전남대 대학원을 수료, 제14회의 개인 전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 지원 전시인 ‘생동 하는 기억, 감각의 은유’, 5·18 민주화운 동 40주년 특별전 ‘별이 된 사람들’ 등 다 수의 기획전전에 참여하며 독보적인 작품 세 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6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광주시 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 재 작품에 더욱 매진하며 자신만의 작품세 계를 더욱 견고히 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 어가고 있다.  
오프닝은 10일 오후 4시 진행됐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여성 역사 품은 도시 길 걷기...인문투어 ‘자리매김’

광주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시민들이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광주여성길’. 광주여성길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광주 여성 역사 탐방 프로그램 으로, 지난 2022년 처음 선보였다.  
지난해 이 길은 102회에 걸쳐 807명 이 다녀갔다. 광주·전남은 물론, 경기도 와 수원, 충청남·북도, 익산, 군산, 대 구, 진주 등 타 시도에서 31회에 걸쳐 방 문하는 등 전국 소재 단체와 시민들이 이 길을 걸었다. 투어 만족도는 98%를 기록했다. 광주여성길은 여성 콘텐츠 도보투어 선진지이자 광주지역 대표적 인 인문도보투어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광주여성길은 ‘두릅길’과 ‘백단심길’, ‘홍단심길’ 등 3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각 코스는 양림동과 충장로 일대의 여성 역사 인물과 장소를 중심으로 광주 여 성 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여성가족재단, 봄 시즌 ‘광주여성길’ 3코스 선배 6월 30일까지 투어...1인 예약 도입 시민 확대도

먼저 두릅길은 양림동을 중심으로 근 대 여성교육과 여성 선교사의 삶을 주제 로 한다. 담요 한장, 보리쌀 두웅, 현금 27전이 전부였던 서서평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을 기린다. 양림동 행정복 지센터 옆 버들나무에서 시작해 오엔기 녘과 조아라기념관, 유진벨 선교 기 녘관, 선교사 묘역, 수피아여교, 서서평 벽화까지 이어진다.  
백단심길은 3·1운동과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삶을 따라 걷는다.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옆 버들나무에서 부터 양림동 소녀상, 오월여미니집, 송 일학교 옛터, 3·1운동 탑과 3·1운동 아 리랑길, 수피아여교, 최홍중 기념관 순 으로 코스가 구성, 김필례를 중심으로

광주여성들의 독립운동을 조명한다.  
홍단심길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충 장로 일대 여성 역사를 중심으로 광주 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광주학 생독립운동 거점지(장재성 뽕집·광성 문구점)와 현덕신 병원 옛터, 김필례 가(서석의원 옛 터 추정), 광주우체국 (현 충장우체국), 흥학관 옛터, 최영은 (정윤성)가 옛터, 소녀회-광주여고보 독서회(현 전남여고) 등을 돌아보며 현덕신을 중심으로 폐업을 혁파하고 주 체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광주여성들 기 억한다.  
이 가운데 올해 봄시즌 도보투어는 이 달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이뤄진다. 5 인 이상 신청 시 참여할 수 있다. 각 코

스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전문 해 설사가 동행해 여성사와 지역 역사 이야 기를 안내한다.  
재단은 올해 일부 코스를 조정하고 1 인 예약 신청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운 영체계를 정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 획이다.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는 “광주여성길은 도시 속 공간에 담긴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시민들이 직접 걸 으며 만나는 체험형 역사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광주 여성 역사문화와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 를 통해 가능하며 광주여성가족재단 누리집 (https://www.gjwf.or.kr/business/04/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0562.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광주미술협회 회장 이·취임식 열린다

### 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신임 이병오 회장

1986년 설립돼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 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 (이하 광주미협) 제12·13대 회장 이·취 임식이 13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할 정암 이병오 작 가(문인화·사진)는 2009년 광주미협 회 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고배를 마신 뒤 재도전 끝 지난해 연말 16년만에 광주 미술협회 수장에 올랐다. 3월 들어 임기 를 시작한 이 회장은 새로운 집행부 구성 과 올해 사업계획 수립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또 박광구 전임 회 장의 퇴임도 참여 회 원들에게 알리는 자리 로 이날 행사가 진행 된다.  
이날 행사는 이임사 와 취임사, 축사, 격려사, 집행부 소개, 행 운권 추첨 등 순서로 이뤄진다  
광주미협은 ‘상생·실천·화합하는 미 협’을 모토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만큼 그 에 걸맞는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 등 을 구상 중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30년 2월 28일까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 예술·사회적 가치 확산 ‘광주예술로’ 공모

### 광주문화재단, 기업·기관·예술인 등 11개팀 지원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해 예 술인의 직업 안정화를 지원하고 예술적·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2026 광주예술 로’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과 예술인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는 기업·기관 11개소, 예술인 55명 (리더예술인 11명, 참여예술인 44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기관과 리더예술 인은 1차 매칭을 통해 협업팀을 구성하 고, 이후 참여예술인과의 2차 매칭을 거 쳐 총 11개 팀(1팀당 기업·기관 1개소, 예술인 5명)이 최종 확정된다.  
협업팀은 6개월여 동안 기업·기관의 ESG 실천, 공간·콘텐츠 기획, 조직 가치 확산 등 다양한 현안을 예술적 방식으로

풀어내는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리 더예술인에게는 6개월간 월 140만원, 참 여예술인에게는 5개월간 월 12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기업·기관은 광주시내 소재하고 사업 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곳 으로, 예술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하는 기업·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기업·기관의 경우 오는 16 일까지, 리더예술인은 오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참여예술인은 오는 4월 28일부 터 5월 1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문화재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